



# 정교회주보

제2561호

2026년 1월 25일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푼 집터 지하에 세워진 성 아나니아 기념 성당 내부 모습

## 루가 제 15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8조 • 조과 복음 11)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주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54
- 사도경 : 히브리 7,26~8,2 .. (봉)615
- 복음경 : 루가 19,1~10 ..... 13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사**울의 기세는 등등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다마스커스까지 흩어진 신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그는 대사제에게서 공문을 받아 길을 나섰다. 그러나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햇살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를 덮쳤다.

땅에 엎드려진 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사도행전 9,4-5)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부활을 부인하던 그가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내면을 지탱하던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나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시력을 잃었고, 타인의 인도에 의해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다. 사흘 동안 어

둠 속에 머물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는,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의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사도행전 9,18 참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 떠난 그 길이, 오히려 그분의 도구가 되는 길로 바뀌었다. 이제 박해자 사울은 사라졌다. 주님께서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사도행전 9,15)이라고 선언하셨다. 인류 역사를 바꾼 거룩한 회심과 사도로의 부르심은 이렇게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2026년 사목 지침서

### 주제 :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신부님들과 사랑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찬의 위대한 성사에 참여한 후, 우리 한국 정교회의 제22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성삼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새해를 기원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께서 보내신 영적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장수, 그리고 모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시며, 제22회 대교구 의회의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년 대교구 의회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공통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물론 해마다 제시되는 새로운 표어가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들을 잇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주제를 소중한 영적 유산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언제나 앞서 다루었던 주제들 위에 더해지며, 이는 마치 건축 자재들이 하나씩 쌓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 건물이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느님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1고린토 3,9).

지난해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였다면, 올해는 대교구 성직자 회의 결정에 따라,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확실하게 거룩함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2026년의 영적 투쟁의 목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데살로니카 4,3)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1베드로 1,16; 레위기 11,44)라고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주제, 곧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심령을 조금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며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II고린토 7,1)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거룩함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서론적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 목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예시적으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주제를 모두 다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더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의

묵상, 성인들의 삶, 예배 안에서 봉독되는 말씀,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들이 다양한 모임에서 전하는 가르침을 통해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비추심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영적 삶에 유익한 또 다른 실천적 길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의 달력 속에 단순히 또 하나의 숫자로 남는 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품어 온 가장 위대한 꿈, 곧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실제 삶으로 감히 실현해 나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의 유일한 목표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더욱 닮아 가는 것으로 삼읍시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기”(에페소 1,4)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도들처럼,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들을 때도 우리는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쫓길 때도 인내로 견디며, 중상과 비방을 받을 때도 하느님께 간구하며”(고린토 4,12-13 참조) 살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자리와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에 목마른 이 세상 안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목표입니다. 2026년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도 밝게 빛나, 천사들조차 “보아라, 이 땅에 또 한 사람이 빛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론스타트의 성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룩함이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이란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여, 당신 곁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성 대 바실리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해진다 것은 거룩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바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돌보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길잡이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여덟 가지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 1. 하루를 휴대전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10분만 더 일찍 일어납니다. 먼저 십자 성호를 긋고, 예수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한 마디 한 마디에 마음을 모아 33번 바칩니다. 그런 다음 성경 말씀 한 단락을 읽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 5,16)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아침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2. 매일 ‘겸손의 규칙’을 하나 정해 실천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할 때는 침묵합니다. 모욕에 맞서 대응하지 말고, 우리를 모욕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다는 유혹이 마음을 불태울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옳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하느님께 맡기자.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신다.” 또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교만의 마음이 들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은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파이시오스 성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겸손은 거룩함의 기초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장식에 불과하다.”

(다음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1월 30일(금)

성 대 바실리오스 대주교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총대주교  
3대 교부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알림

### ■ 제22회 대교구 의회

2026년도 대교구 의회가 지난 주일(18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의회에는 100명에 가까운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의 축복과 기원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올해의 사목 지침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대교구 및 각 성당의 2025년도 영적 사업과 시설·설비 사업, 재정 결산을 보고하는 한편, 2026년도 영적 사업과 시설·설비 사업 계획, 재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회 말미에 대주교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마르코 10,27)라는 성서 말씀을 인용하시며, 2026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모든 교인들이 일치와 협력,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함께 노력한다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영성의 샘터

##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고요

어느 초보 수도자가 루포스 사부에게 고요가 무엇인지 또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다.

"고요는 그대가 기도하는 방에 들어 앉아 복수심과 교만을 영혼으로부터 멀리 몰아내고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이라네.

이 고요는 많은 덕을 이루어내고 사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주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잦은 기억은 그대가 고요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또한 고요는 그대가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도해 준다네."

